

갈암 이현일 기행시의 특징 및心の형상화

김종구*

|| 차례 ||

- I. 서론
- II. 이현일 기행시 현황
- III. 기행시의 특징과心の형상화
- IV. 결론

【국문초록】

이현일은 ‘퇴계-학봉-경당-갈암’으로 이어지는 퇴계학의 心學과 사상을 이어받아, 17세기 영남학파의 영수가 되었다. 본 논의는 이현일의 유람과 기행에 나타나는 특징과心の形象化에 주목을 하였다. 즉, 일상을 벗어나 일어나는 현상과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면, 이현일의 인간상을 정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일의 유람 및 기행 공간은 고향 주변·안동·서울로 가는 길목·유배지 등이었고, 다양한 마음의 정서를 표출하며 시를 창작하고 있었다. 그는 유람을 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교차되거나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기행시에 나타난 특징 및心の형상화는 첫째, 山水 玩賞과 抒情味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仙境을 소요 및 완상하고, 순전한 서정적 아름다움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둘째, 그의 기행과 유람은 은일 지향과心の형상화로 나타나고 있었다. 선현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은일을 지향하며, 마음의 상태를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셋째, 다양한 想念이 일어나, 시대와 현실을 걱정하고 있었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졸업(piny0928@hanmail.net)

다. 일상을 벗어난 유배 중에도, 오랑캐에 대한 걱정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상념은 재상으로서의 기상을 지니며 나타나고 있었다.

주제어 : 갈암 이현일, 유람, 기행, 기행시, 心, 形象化, 抒情, 隱逸, 想念

I. 서론

葛庵 李玄逸(1627-1704)은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아, 17세기 영남학파의 영수가 된다. 퇴계-학봉-경당-갈암의 계보를 이어, 학덕과 인품으로 학파의 대표에게 제수되는 ‘山林’이 된다. 그리고 山林儒賢의 벼슬인 祭酒에 임명되어 經筵에 참석한다. 당대는 봉당정치가 팽배한 시기로, 이현일은 출사와 퇴치를 반복하며, 유배 생활을 겪기도 한다. 본 논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간 이현일의 유람과 기행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을 넘어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우리는 일상을 벗어난 그의 삶이¹⁾ 궁금하다. 그중 유람 및 기행에서 일어난 그의 마음의 상태와 행동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존중받는 학자의 진정한 위상과 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세의 인물은 경이 아니면 역시 알기 어려우니, 경이 일을 끝내고 조정에 나오거든 날마다 國學에 나아가 사방의 학자와 서울의 여러 선비들, 그리고 民間의 준수한 자들을 불러들여 『心經』·『近思錄』·『朱子書節要』와

1) 본 논의는 不愧屋漏처럼, 기행 중에 이현일이 소수의 同人과 있거나 혼자 있을 때를 주목한다. 나아가 그럴 때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기행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변화에도 주목하여, 이현일의 명성에 맞는 그 내면이 표출되는 현상과 실천적 행위를 고찰할 수 있다.

五經과 子·史 등의 책들을 서로 함께 강론하여 明體適用을 위주로 하고, 임금께 충성하고 어른을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삼도록 한다면, 반드시 보고 감화되어 興起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經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자를 가려서 경이 건의한 대로 차출하여 직무를 맡긴다면 인재가 성하게 배출되고 풍속이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²⁾

위의 글은 숙종이 1689년에 이현일(63세)에게 보낸, ‘12월 20일 임오에 상이 別諭를 내려, 이전에 올린 소에서 논한 세 가지 일에 대해 조목별로 답하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이현일에 관한 당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心經』·『近思錄』·『朱子書節要』와 五經과 子·史에 능통하고, 몸소 그 道를 실천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글을 내리는 것이다. 이현일은 퇴계학 및 그 성리학을 계승한 인물이었기에, 그에 관한 당대의 위상과 역할은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현일은 諸葛亮을 흠모하여, 그 역시 은일하여 학문을 탐구하고 오래도록 수양과 함양을 했다. 『갈암기』에서, “내가 칩으로 만든 葛巾으로 술을 거르고 칩으로 만든 신발로 서리를 밟으며 칩으로 만든 베를 몸에 걸침으로써 더위를 막고 칩으로 만든 줄로 지붕을 엮어땀으로써 비바람에 대비한다.”³⁾라고 하며, 스스로 葛天氏의 무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葛庵’이라고 自號한다. 즉 布衣之士, 隱求之士를 지향하고 있었다. 위의 글처럼, 유일로 천거되어 경연에 참석해, 특히 『心經』 및 心

2) 이현일, 『갈암집 부록』 제1권, 「연보」, “當世人物 非卿亦難識 待卿完事登朝 日就國學 招延四方學者及京中多士凡民俊秀者 以心經近思錄朱書節要五經子史等書 相與講論 以明體適用爲主 以忠君事長爲本 則必有觀感興起之人 擇其中經明行修者 差充職事 如卿所陳 則人才可以蔚興 風俗可以丕變.” 본 논의의 국역은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를 참조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3) 이현일, 『갈암집』 제20권, 「葛庵記」, “今吾戴之以漉酒 躡之以履霜 表身以當暑 縛屋以備風雨”

學과 관련된 논변을 많이 했다. 학문 및 心學은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 이현일은 유일천거, 인품, 학덕으로 명성이 나 있었기에, 일상을 벗어나 이뤄지는 그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안과 밖, 내면과 외면에서 드러나는 행위 및 현상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현일의 유람과 기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그와 관련된 연구는 한시, 사상 분야에 집약되어 있다. 한시 연구는 종합적인 고찰과 詠史에 대한 논의⁴⁾가 있다. 당대 정치와 정국의 동향에 관한 논의⁵⁾가 있고, 학맥과 학파에 관한 논의⁶⁾가 있다. 이현일에 관한 논의는 사상과 성리설 및 논쟁⁷⁾이 다수를 차지한다. 생애와 교육 및 대중서⁸⁾와 관련

4) 신두환, 「葛庵 李玄逸의 漢詩에 나타난 詠史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2, 2011, pp.177-208.

신두환, 「갈암 이현일의 漢詩 연구」, 『퇴계학』 제20집, 2011, pp.101-153.

송재소, 「葛庵 李玄逸의 詩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14집, 1998, pp.17-26.

이민재, 「갈암 이현일의 시문에 나타난 역사의식」, 『배달말』 제54집, 2014, pp.157-193.

5) 정만조, 「조선후기 정국동향 政局動向과 葛庵 李玄逸의 정치적 位相」, 『퇴계학』 제20집, 2011, pp.1-27.

김학수, 「葛庵 이현일 연구 -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제4집, 1998, pp.85-126.

6) 김학수, 「葛庵 李玄逸의 學問과 經世論 연구 - 영남학파의 결집과 경세론을 중심으로 -」, 『청계사학』 제19집, 2004, pp.89-148.

김학수, 「갈암학파의 성격에 대한 검토 - 諸 學脈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 『퇴계학』 제20집, 2011, pp.65-99.

박홍식, 「葛庵 李玄逸과 寧海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28집, 2000, pp.179-200.

7) 장윤수, 「葛庵 李玄逸의 敬論과 이론 배경」,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8집, 2011, pp.241-276.

유권중, 「특집 : 한국성리학의 전개와 여헌사상 (1) : 갈암의 여헌 성리학에 대한 비판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27집, 2006, pp.81-115.

이상익, 「葛庵 李玄逸의 理能發論과 理氣分開論」, 『퇴계학보』 제122집, 2007, pp.159-214.

된 논의가 있고, 「홍범연의」⁹⁾에 관한 논의도 있다.

이현일에 관한 논의는 성리설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학문의 요체는 心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상태 및 정서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없다. 학문은 실천과 그 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으로 드러나는 실상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현일을 존경하는 이유와 그 인품과 덕행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는 17세 영남학파의 영수인 이현일의 유람과 기행에

김낙진, 「葛庵 李玄逸 성리설과 경세론의 특색」, 『퇴계학』 제20집, 2011, pp.29-64.
이기용, 「葛庵 李玄逸의 栗谷 性理學 비판」, 『울곡학연구』 제16집, 2008, pp.5-31.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환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퇴계학보』 제138집, 2015, pp.159-188.

김경호,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울곡 사칠론 비판: 그 접점과 간극」, 『울곡학연구』 제19집, 2009, pp.111-162.

나대용, 「갈암 이현일의 理氣二源說 - 愚潭과의 논변을 중심으로 -」, 『퇴계학보』 제133집, 2013, pp.133-184.

안유경, 「17세기 후반 퇴계학과 성리설의 분화양상에 관한 연구 - 우담과 갈암의 울곡 성리설 비판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제34집, 2013, pp.249-270.

이원준·최영진, 「理到說에서 理盡說로: 葛庵 李玄逸의 物格說」, 『한국사상사학』 제50집, 2015, pp.367-395.

8) 권병도, 「葛庵 李玄逸先生の 생애와 箴銘에 대하여」, 『동양예학』 제35집, 2016, pp.1-20.

정낙찬, 「갈암 이현일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제50집, 2013, pp.269-305.

김학수, 「17세기 영남 유학자, 葛庵 李玄逸」, 『선비문화』 제20집, 2011, pp.136-147.

9) 이영호, 「『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 이휘일·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 『퇴계학보』 제143집, 2018, pp.107-136.

김성운, 「『홍범연의』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 葛庵 이현일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론 -」, 『대구사학』 제83집, 2006, pp.105-134.

김성운,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 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 『퇴계학보』 제119집, 2006, pp.69-122.

김홍수, 「『洪範衍義』의 편찬과 간행」, 『민족문화논총』 제57집, 2014, pp.27-51.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心의 形像化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상을 벗어난 유람 및 유배 생활의 기행의 특징과 心理를 파악한다면 이현일의 삶과 실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이현일의 기행시 현황을 살펴 분석하고, 다음으로 기행시에 나타난 특징과 心의 형상화를 고찰해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현일 기행시 현황

「연보」에 나타나는 이현일의 유람과 관련된 서술은 얼마 되지 않는다. 1652년(26세) · 1653년(27세) · 1662년(36세) · 1701년(75세) 등이 전부이다. 이는 이현일이 귀양을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람이라고 기술하기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 생활에서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선상에서 주변의 山水를 기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52년에는 겨울에 淸涼山을 유람했다. 存齋 李徽逸, 넷째 아우 恒齋公 李嵩逸과 함께 노닐었고,唱酬한 시들이 여러 편 있다. 1653년에는 11월에 경주를 유람했다. 이휘일을 따라 丙延山을 유람하고 玉山書院을 尋訪했다. 이때도 지은 작품이 여러 편 있다.

1662년에는 9월에 嶺東의 江陵을 유람했다. 그리고 여섯째 아우 處士公 李隆逸과 함께, 關東 지방의 명승지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다. 1701년에는 3월에 默溪에서 노닐며, 임하현의 서쪽 상류 암벽 인근에서 하루 종일 유람을 하면서 시를 지어 절경을 기록하였다. 그 외 이현일은 아버지의 이거 및 형제들과의 독서 및 강학 시절, 고향의 주변 山水를 기행하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가)

강호를 떠도는 나그네 유람을 좋아하여	海客喜遊賞
파리한 몸을 이끌고 선달 열흘에 나섰네	驅羸臘月旬
이미 눈신을 꾸렸으니	已裝衝雪屐
몸이 추울까 겁을 내서가 아니라네	非復怯寒身
봉람에 도착하니 봉람이란 편액만 있어	到鳳空題鳳
고인을 생각하니 다시 머리가 아프네	懷人更惱人
낙동강 달 밝은 밤에	洛江明月夜
머리 돌려 생각하니 배나 마음이 상하네	回首倍傷神 ¹⁰⁾

(나)

그러므로 옛말에, ‘봄에 밭갈이를 살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가을에 추수를 살피 부족한 것을 보조해 준다. 한 번 유람하고 한 번 즐기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된다.[春省耕而助不給 秋省斂而補不足 一遊一豫 爲諸侯度]’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실로 내 뜻과 부합된다. 내가 유념하겠다.”¹¹⁾

위의 (가)와 (나)를 통해 이현일이 유람을 좋아하는 山水癖과 遊覽癖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가)는 「눈을 만나 鳳覽書院에서 자며 石門老人을 생각하다. 무술년(1658¹²⁾, 효종9)」이다. 그는 선달 열흘,

10) 이현일, 『갈암집 별집』 제1권, 「눈을 만나 鳳覽書院에서 자며 石門老人을 생각하다. 무술년(1658, 효종9)」

11) 이현일, 『갈암집』 제7권, 「經筵講義 筵席의 대화 내용을 첨부함」 「갑술년(1694, 숙종20) 2월 12일(경진), “故古語曰 春省耕而助不給 秋省斂而補不足 一遊一豫 爲諸侯度 惟殿下念哉 上曰 所言實合予意 予當體念焉.”

12) 이 해에 이현일은 「葛庵記」를 지었다. 영해와 영양은 거리가 80리이고, 영양의 동북쪽 40리 마을, 首比에 초당(1653년)을 지어 ‘葛庵’이라고 했다. 이후 그 기문에서 아름다운 山水에 은거해, 제갈공명과 주자를 존송하며 학문을 하고, 山水에 노니는 즐거운 풍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그해 12월에 중형 및 넷째 아우와 陶山書院

유람하기 편한 적절한 계절이 아닌데도,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다. 눈신을 챙겨, 험난한 유람길을 대비하고 있었다. 鳳覽書院(경상북도 청송군眞寶面 理村里에 있던 서원)은 1602년(선조 35)에 창건되어, 이황의 위패를 모시고, 1630년(인조 8)에 사액을 받았다. 이현일은 이황-김성일-장흥효의 학맥과 김성일의 삶을 생각하며 감회에 젖고 있다.

(나)는 「經筵講義 筵席의 대화 내용을 첨부함」 「갑술년(1694, 숙종 20) 2월 12일(경진)」이며, 유람의 중요성을 숙종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그에게 유람은 단순히 완상과 유희만을 즐기며 노니는 게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직접 관찰해 그 실상과 궁핍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정사에 임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현일은 경연장에서 『대학연의』의 治國平天下의 도리를 가져와 백성들의 정확한 삶을 유람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가)와 (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현일의 유람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이리저리 떠도는 사이 강가 마을에 꽃이 피니	漂泊花開岸上村
풍연과 물색이 번성해 보이네	風烟物色望中繁
도를 찾는 마음은 선계를 다 뒤지고 싶지만	尋眞準擬窮仙界
실제 바람이야 어찌 성은 입는 것 그르게 여기랴	果願寧非荷聖恩
방장산에 뿌리 얹히니 웅장한 지축이고	方丈根盤雄地軸
瀟湘江에 파도 걷히니 툭 트인 천문일세	湘江濤捲豁天門
언제나 그대와 함께 유람하여	何當與爾同遊賞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잔을 기울여 볼까	觴詠終朝直到昏 ¹³⁾

에서 모여 『퇴계집』을 講說하고, 鳩齋 金啓光 및 여러 선비들과 함께 丹砂峽에 들어가, 孤山 李惟樟과 함께 노닐며 酬唱을 하기도 했다.

13) 이현일, 『갈암집 별집』 제1권, 「高美叔 徽世가 보내 준 시에 차운하다.」

위의 시는 「高美叔 徽世가 보내 준 시에 차운하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현일은 귀양을 간 곳에서도, 그 지역의 아름다운 山水를 탐닉하고 있었다. 물론 자유롭게 유람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선비들과 교유하며 아름다운 仙境을 유람하고 싶었다. 강가 마을에 꽃이 피고, 山水가 번성한 아름다운 仙境을 직접 찾아 나서고 싶은 것이다. 즉 방장산과 소상팔경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山水를 찾아다니며 기행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가, “한낮이라 들판엔 안개와 이슬 견혀, 벗들과 천천히 거닐며 한가히 노닌다. 산촌 막걸리 기울이매 호기가 일어나, 이내 생애 이미 백발인 줄도 몰라라.”¹⁴⁾라고 한 것에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현재 기거하는 주변의 山水를 同人과 함께 소요하는 즐거움도 만끽하고 있었다. 이는 위의 시의 공간처럼 최고의 명승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仙境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山水와 가벼운 유람을 즐기는 풍류를 향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음은 이현일이 유람 또는 기행을 하고 남긴 시를 정리한 도표이다.

〈표 1〉 이현일의 기행시 작품명과 그 공간 및 心狀

순번	작품명	기행 공간	心狀 및 비고
1	仲氏 存齋 … 도중에 짓다.	청량산	천리, 存齋, 嵩逸
2	丹砂峽	단사협	
3	招仙臺에서 仲氏의 시에 차운하다.	초선대	仲氏
4	內延山에 … 시에 차운하다.	내연산	

14) 이현일, 『갈암집 속집』, 「봄날 安國華 命夏와 시냇가에 노닐며」, “當午郊原霧露收 携朋緩步辦清遊 山醪倒盡豪情發 不覺吾生已白頭.”

5	경주[東都]로 … 위에서 짓다.	경주[東都]	
6	鳳凰臺	鳳凰臺	
7	南征紀行	남정, 경주	27세, 栢栗寺
8	新川으로 … 시에 차운하다.	新川	유연, 즐거움
9	신천의 村舍에서 … 감회가 일기에	신천 촌사	초세
10	중씨를 모시고 … 차운하다.	宣城, 예안	歲寒志節
11	鳳覽으로 가는 도중 무술년 겨울	봉암	탄식, 상념
12	陶山에서 洞主 金汝用 礪게 바치다.	도산	퇴계, 평안, 지란지교
13	溪上에서 벗들과 작별하며	계상	의구심 해결, 구도, 친교
14	寧海로부터 … 이르러 짓다.	영해-노현	무릉, 술쑈, 복사꽃
15	경자년 늦은 봄에 … 춘을 얻었다.	溪亭	흥, 洗心
16	임인년 人日에 … 시를 읊다.	검마산, 도성암	초세, 탈속
17	장차 江陵으로 … 비를 만나	강릉	서정
18	旅舍에서 회포를 적다.	溟州의 旅舍	江陵, 시대, 상념
19	鏡浦臺에 올라 2수	경포대	시대, 상념, 범려
20	江陵으로부터 … 비를 만나	강릉→고향	서정미, 평사낙안
21	1월 6일, … 石門亭에 올라	석문정	김성일, 은거, 학문
22	月城 李君이 … 웃음거리로 삼노라.	학가산, 巖壑	흥, 서정
23	기사년 늦은 봄 … 노닐며	삼성암	洗心, 알인육존천리
24	3월 9일, … 한 수를 읊다.	강촌	수신, 함양
25	이별을 … 감회가 일었다.	한강	이별의 정한, 상념
26	江村에서 … 거슬러 오르며	강촌	
27	강촌에서 비를 만나	강촌	
28	驪州 淸心樓에 올라 감회가 일어	驪州 淸心樓	서정+시대 인식, 상념 습합

29	原城 … 보고 감회가 일어	원성, 귀거래사	
30	中原 …	중원 객사,	귀거래, 출사, 퇴처
31	중원의 淨友堂 … 감회가 일기에	중원, 정우당	시대 인식, 고향, 상념
32	高城을 지나면서 감회가 일어	고성	귀양, 선경
33	재차 嶺北으로 향하며	영북	관동, 영북, 삼천리
34	磨天嶺을 넘으며	마천령	상념
35	磨雲嶺을 넘으며	마운령	상념
36	8월 15일 밤, 玉龍寺에 묵으며	옥룡사	상념, 알인육존천리, 교차
37	花開에서 鄭一蠹의 遺墟를 지나며	화개, 일두 유허	무오사화, 상념
38	雙谿石門에 들어가	쌍계석문	무릉도원, 淸遊
39	雙谿寺에서 聽上人에게 주다.	쌍계사	상념, 이별의 정한
40	玩瀑臺에 올라	완폭대	알인육존천리, 구도, 心學
41	佛日庵에 올라	지리산, 불일암	心學, 세속의 욕심 사라짐
42	靑鶴樓에 올라, … 회포를 달래다.	청학루	최호의 황학루, 초세+충
43	岳陽樓 遺址에 올라	악양루	선경, 서정미
44	李大而 樞의 강가 정자에 묵으며	이온 정자	이별의 정한, 상념
45	봄날, … 同志들에게 보이다.	관란정	욕기, 서정미+구도
46	仲春 … 나갔다가 느낌이 일어	시냇가, 중춘	욕기, 리
47	驚城 … 바라보다 감회가 일어	戒懼巖, 망우당	시대(역사)인식, 상념
48	宜春城 밖을 지나다 감회가 일어	宜春城	상념
49	白蛇 … 默溪書堂에 노닐며	묵계서당	서정, 흥
50	西岳書院 … 에서 자며 감회를 읊다.	서악서원	구도, 계사년(1653, 효종4)
51	눈을 만나 … 石門老人을 생각하다.	봉림서원	상념, 시대, 1658(효종 9)
52	임인년(1662, 현종3) … 재차 짓다.	劍磨山, 道成庵	시대인식, 상념

53	驪州의 … 시에 차운하다.	驪州, 淸心樓	서정, 소요 배회
54	金砂 … 감회를 읊다.	尹白湖 옛 집터	지사, 상념
55	默溪書堂에 노닐며	묵계서당	서정미, 인물, 공간
56	봄날 安國華 命夏와 시냇가에 노닐며	시냇가	소요, 소소한 풍류
57	吉州 일명 雄城을 지나다 감회가 있어	길주, 웅성	시대 인식, 비판
58	景羲의 越松亭 시에 차운하다.	월송정	시대 인식

위의 표는 이현일이 유람 및 기행을 하고 남긴 시이다. 그는 山水를 유람하고 남긴 작품의 갈래는 거의 한시이다. 산문으로 ‘록’, ‘기’로 남긴 기록은 없다. 이현일은 한시를 통해 기행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정서를 드러내기 좋은 방편으로 함축적인 시를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경연강의에서 구체적인 心學¹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그 마음을 오히려 함축적으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유람 및 기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의 心淸의 상태와 변화되는 추이이다. 이현일은 퇴계의 학통을 이어 받아, 17세기 영남학파의 영수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거하며 은일해 학문을 탐구했고, 벼슬의 출사와 퇴처를 거듭 반복했으며, 유배를 가는 경우도 있었기에, 그의 유람과 기행은 다채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우선 그의 유람 공간은 고향 주변·안동·서울로 가는 길목·유배지

15) 心을 제대로 드러내기란 어렵다. 특히 한시의 잠명 또는 제목 및 내용에서 『心經』의 일부를 차용하여 가져 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상으로 드러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깊이과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한시를 통해 남기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형태를 산문으로 특징지어 드러내어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향 영해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는 자연스러운 유람 공간이 되었다. 아래로 경주를 비롯해 관동 지역까지 그의 유람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그는 학통 및 장흥효의 외손이었기에, 안동 지역도 자연스럽게 유람 공간이 되고 있었다. 나아가 잦은 출사와 퇴치로 고향과 서울을 오고 가며, 그 주변을 유람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지역에 유배되었기에, 진주 및 지리산 일대와 관동지역의 여러 공간도 기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유람을 하고 마음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두드러지게 특징 있게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 心狀을 작품화하여 시로 남기고 있다. 이현일은 유람을 하면서, 그 공간에 감흥하여 서정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발흥하고 있었으며, 은일을 지향하는 마음과 洗心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현실과 시대를 정확히 인식 및 비판하며, 다양한 想念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념은 당대의 시대 인식을 반영하며 그의 재상적 기상으로 일어나, 국가의 안위·이별의 정한·시대 비판·역사 인식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의 상태가 교차되거나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아름다운 서정을 느끼고 이어서 邊人慾存天理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도 했고, 仙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시대를 인식하며 탄식하기도 했다. 때로는 귀양지에서의 불안한 심정과 자신의 희망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당대의 불안한 정국과 시대로 인해 仙境을 찾아다니고자 하는 마음도 표출되기도 했다.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개인의 수신 및 함양에 관한 문제와 집안의 가족과 관련된 기억과 상념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행의 특징과 心의 형상화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III. 기행시의 특징과 心의 형상화

1. 山水 玩賞과 抒情味

이현일은 1674년 48세에 비로소 유일로 천거되었지만, 삼년상을 거행하기 위해서 출사를 온전하게 하지 않았다. 여러 번 거절했으나, 1678년에 공조정랑·지평에 임명된다. 그러나 곧 1680년(숙종 6)에 庚申換局이 일어나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퇴쳐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시 己巳換局이 1689년(숙종 15)에 일어나 출사를 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하지만, 甲戌換局이 1694년(숙종 20)에 일어나 다시 서인이 정국을 장악해, 이해(68세) 그들의 罪目에 걸려 경도 종성에 圍籬安置된다.

이후 7여 년간 북, 남쪽 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74세가 되어서야 유배에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78세에 세상을 떠나니, 출사 이전, 출사 이후의 퇴쳐 반복, 노년의 유배 생활로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그가 유람하고 남긴 기행시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평탄치 않던 삶의 행적과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출사와 퇴쳐 반복, 당대 붕당정치, 정국의 불안 요소 등으로 우선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이현일은 유람하면서 山水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고 그 서정적미를 마음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가)

바닷가 찬비가 사립을 들이치는 이 밤	海天寒雨夜侵扉
시름에 젖은 길손은 고향 꿈이 아련하여라	客枕清愁歸夢依
새벽녘 여장 꾸리매 끊일락 이을락 이는 구름	催曉束裝雲斷續
어둠 헤치고 말 모니 썩늘하게 뿌리는 부슬비	撥陰驅馬氣淒霏

바다에 거세게 이는 풍랑을 마음껏 구경하고	縱觀溟渤風濤湧
소상강에 기러기 날 것을 멀리서 생각하노니	緬憶瀟湘陽鳥飛
만리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지 않건만	羽翮非無排萬里
무슨 까닭에 괴롭게도 나직이 날아다니는가	翱翔何事苦低微 ¹⁶⁾

(나)

일만 첩첩 두류산은 골짜기도 그윽해	萬疊頭流洞壑幽
남여 한 대 타고서 맑은 유람 별이노라	藍輿一隻辦清遊
복사꽃 뜬 봄물에 돌아갈 길 잊었으니	桃花春水迷歸路
곧장 어선을 노 저어 물길을 거스를거나	直棹漁舟欲溯流 ¹⁷⁾

(가)는 「江陵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비를 만나」이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바닷가 백사장이다. 이때의 유람을 이현일은 유명한 瀟湘八景 중 平沙落雁의 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러기에 자신의 정서를 대입해 안타까운 심정도 드러내고 있지만, 비가 내리는 바닷가 백사장의 아름다운 정취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장차 江陵으로 갈 즈음 도중에 비를 만나」에서도, “바다가 하늘 끝 잇닿아 생각 함께 멀어지니, 뿌리는 빗방울이 옷깃 적시는 줄도 잊었노라.”¹⁸⁾라고 하면서 비 가와 옷이 젖는 줄도 잊은 채, 동해안 바다의 아름다운 정경을 완상하며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그의 출사와 퇴치가 반복되는 시기로 짐작되며, 혼란한 정국에 대한 마음을 선경 완상으로 해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16)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江陵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비를 만나」

17) 이현일, 『갈암집』 제1권, 「雙谿石門에 들어가」

18) 이현일, 『갈암집』 제1권, 「장차 江陵으로 갈 즈음 도중에 비를 만나」, “滄海極天思共遠 却忘飛雨入征衣.”

(나)는 「雙谿石門에 들어가」이다. 이현일은 지리산을 유람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윽한 지리산과 복사꽃 뜬 봄물을 완상하며, 마음속으로 이곳을 武陵桃源으로 느끼고 있다. 물을 거슬러 배를 몰아가는 생각 역시 「도화원기」의 무릉도원과 淸遊를 생각하게 된다. 이현일은 지리산 일대를 유람하고, 「花開에서 鄭一蠹의 遺墟를 지나며」·「雙谿寺에서 聰上人에게 주다」·「玩瀑臺에 올라」·「佛日庵에 올라」·「岳陽樓 遺址에 올라」 등의 작품을 남긴다. 이와 같은 시들은 진주 일대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행을 남긴 시로 추측되며 그의 유배 당시의 심경과 체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그의 지리산 일대 유람은 유배의 불안한 심정을 해소하기 위해, 유적지와 명승지를 탐방해 완상하는 1차 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가)

풀 우거진 물가로 옛터를 찾아가니
군산은 낙조 속에 의연한 모습이어라
드넓게 오초를 삼킨 것 말해 무엇하랴
조물주가 참으로 소유천을 만들어 냈구나

爲訪遺墟草浦邊
君山落照尙依然
闊吞吳楚何須說
造物眞成小有天¹⁹⁾

(나)

벗들과 함께 말에 몸 맡겨 경치 찾아 나서니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어 봄도 저물려 하누나
산천을 시로 음미하며 명승고적에 머무노니
풍월을 시로 품평할 사람은 다시 누구이런고
맑은 물 출렁이는 호담은 끝없이 깊지만

携朋信馬爲尋眞
柳綠花紅欲暮春
吟賞湖山留勝跡
品題風月更何人
壺潭漾漾深無底

19) 이현일, 『갈암집』 제1권, 「岳陽樓 遺址에 올라」

벼랑에 걸린 돌길은 발을 붙일 길이 있어라	石磴懸崖路有因
종일토록 이곳에 올라 보매 맑은 흥이 많아	盡日登臨清興足
이제부터 곧장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고파라	從今直欲謝塵囂 ²⁰⁾

(가)는 「岳陽樓 遺址에 올라」이다. 이현일은 악양루의 유지를 유람하며, 아름다운 공간에 매료되고 있다. 주변의 山水, 섬진강의 가의 유지는 중국의 악양루에 빗대고 있다. 악양루는 湘山인 君山, 洞庭湖 가에 있다. 杜甫가 악양루에 올라가 지은 「등악양루」²¹⁾를 비유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우리의 악양루는 ‘小有天’, 즉 道家의 三十六洞天 중 첫째인 신선이 사는 곳처럼 아름다움은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표현하고 있다. 이현일은 악양루 유지 주변을 완상하고 서정적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나)는 「白蛇의 늦은 봄날, 默溪書堂에 노닐며」이다. 목계서원(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은 1684년(숙종 10)에 서원을 세워, 1706년(숙종 32)에 廟宇인 淸德祠가 완성된다. 그리고 金係行과 玉沽를 제향하게 된다. 이현일이 방문한 해가 서당으로 있을 때인지 서원으로 승격된 이 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마음의 형상은 확인할 수 있다. 1구에서 이미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나서는 同人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山水의 아름다운 정경과 그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이현일은 스스로 淸興이 일어났다고 노래하며, 그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마음의 정서를 알 수 있다.

20) 이현일, 『갈암집』 제1권, 「白蛇의 늦은 봄날, 默溪書堂에 노닐며」

21) 두보는 「등악양루」(『杜工部集』 『草堂詩箋』 참조.)에서, “오초는 동남으로 갈라졌고 건곤은 밤낮으로 떠 있노라.”(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가)

손님과 주인은 동남 지방의 명사	賓主東南美
강산의 경치도 빼어난 이곳이라	江山絕勝區
여기 올라 조망하니 날씨도 좋아	登臨風日好
조물주가 우릴 시기하는 건 아닐세	造物不猜吾 ²²⁾

(나)

원룡이 누웠던 구름 위로 솟은 천 길의 누대여	元龍千尺抗雲端
하늘까지 닿는 봉우리 참으로 잘생긴 모습이네	天際螺巒正好顏
장사꾼의 배들은 천 이랑의 강에 서로 교차하고	估客交柯千頃碧
이내는 만 겹의 산에 가득하도다	晴嵐橫帶萬重山
승지는 멀고 험한 곳에 있다고 말하지 마라	休言勝地須遐險
이곳은 원래 높이 솟아 세간을 벗어났네	自是高標出世間
지난해와 금년에 거듭 와서 배회하니	去歲今年重徙倚
덧없는 인생 혼자서 잠시 한가히 지내네	浮生偶得暫時間 ²³⁾

이어서 (가)는 목계서당과 관련된 다른 시이다. 비록 짧은 형상화이지만 주와 객이 이름난 명사이고, 山水 또한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同人과 仙境에서 노니는 장면은 조물주의 시기를 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17세기 당대의 불안한 정국에서 잠시 벗어나, 좋은 날씨에 山水와 더불어 노니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현일은 도산서원, 서악서원, 봉암서원 등을 유람했지만, 유독 목계서당의 유람은 서정적이며 낭만적으로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나)는 「驪州의 淸心樓에서 牧老의 시에 차운하다.」이다. 이현일은 원룡의 고사²⁴⁾를 인용하여, 청심루가 높고 웅장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

22) 이현일, 『갈암집 속집』 제1권, 「默溪書堂에 노닐며」

23) 이현일, 『갈암집 별집』 제1권, 「驪州의 淸心樓에서 牧老의 시에 차운하다.」

리고 주변의 인물과 山水 정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자주 와서 배회하는 모습에서 그의 서정미를 느낄 수 있다. 이현일은 청심루와 관련된 다른 시에서, “여주 고을이라 북쪽에 있는 청심루, 협곡 거슬러 와서 올라 멀리 조망하니, 난간 밖 긴 강에는 파도가 질펀하고, 구름 가 늘어선 산들 기세가 치달려라.”²⁵⁾라고 하여, 청심루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보인다. 청심루의 주변 山水를 완상하며, 그 정서를 서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현일은 1674년(48세)의 유일로 천거되었지만, 1680년(庚申換局) · 1689년(己巳換局) · 1694년(甲戌換局) 등으로 출사와 퇴치를 반복한다. 결국, 봉당의 소용돌이로 1694년 68세에 유배를 떠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이현일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유람과 기행의 특징이 불안한 정국과 관련이 있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또한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문이 아닌 기행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포착된다.

즉, 이현일의 당대는 봉당정치로 정국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의 정서가 유람에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출사를 고집하지 않았고, 여러 번 거절하며 출사를 했기에, 그의 정사에 대한 희망은 좌절과 실패가 거듭 반복되었다. 이현일이 유람하고, 기행시를 창작한 정확한 시기

24) 원룡은 東漢 시대의 陳登의 자이다. 許汜가 진등을 찾아갔을 때, 진등이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는 침상에 누고 허사는 침상 아래에 눕게 했다. 이에 관해 劉備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소인이었다면 원룡이 자기는 백 척의 樓 위에 누고 그대는 땅에 눕게 하였을 것이다.” 하였다.(『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참조.) 여기서 이현일은 청심루가 원룡의 호기가 높은 것처럼, 높고 호방하다고 의인화시키고 있다.

25) 이현일, 『갈암집』 제1권, 「驪州 淸心樓에 올라 감회가 일어」, “黃驪州北淸心樓 溯峽來登騁遠眸 檻外長江波浩漾 雲邊列岫勢騰浮.”

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이러한 그의 마음의 상태가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유일로 천거된 이후, 출사와 퇴거 및 유배의 기간이 40여 년이 훨씬 넘는다. 그러하기에 그는 당대 정국의 불안함으로 인해 단순히 山水 유람을 하며, 仙境을 소요 및 완상하고, 순전한 서정적 아름다움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2. 은일 지향과 心狀 표현

이현일은 퇴계학을 계승하여, 17세기 후반 퇴계의 성리설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心學과 관련된 논변, 즉 理와 氣, 人心과 道心, 四端과 七情,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등의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있었다. 이황-김성일-장흥효-이현일의 학통을 이어, 이재-이상정-유치명-김홍락으로 이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장흥효는 그의 외할아버지이고, 이재는 그의 아들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현일은 유람하며 다양한 心狀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 정서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자.

(가)

인간 세상 벗고 만 길 높이로 우뚝 솟았으니
돌개바람 타고 곧장 오르매 마음이 아득해라
구름 속 봉우리 우뚝 솟아 학이 깃들 만하고
모래 위 물 비고 맑아 물고기 헤일 수 있어라
곽씨 데리고 신선 배 타던 일 사람들은 말하고
석실에서 주서를 읽던 시절을 나는 생각하노라
다니는 곳 그 어느 곳이나 유적이 아니리오
벼랑은 우뚝한데 거처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斗絕人竇萬丈餘
颿梯直上意茫如
雲峯危聳堪巢鶴
沙水空明可數魚
人道仙舟携郭事
吾思石室點朱書
經行底處非遺蹟
壁立依倚見啓居²⁶⁾

(나)

신령한 구역에 자리한 동문 깊은 곳	洞門深處占靈眞
곡구에는 천추에 다시금 사람이 있구나	谷口千秋更有人
학가산 이름은 진작에 좋다고 들었으니	鶴駕山名聞已好
난생의 신선과 틀림없이 서로 친하리라	鸞笙仙侶定相親
집 옮긴 것이 어찌 방외를 좇기 위해서라	移家豈爲追方外
땅 피한 건 원래 이인이 가깝기 때문이지	避地元因近里仁
우연히 맑은 시내로 드니 그윽한 흥이 많아	偶入清溪幽興足
이 가운데 마음속이 한바탕 새로워지누나	箇中意思一番新 ²⁷⁾

(가)의 시는 「1월 6일, 여러 벗들을 데리고 石門亭에 올라」이다. 金誠一은 은일하여, 石門精舍라고 편액하고, 학문 탐구와 수양을 하였다. 석문정은 김성일의 장수유식처인 것이다. 後漢의 郭太의 고사를 인용해, 김성일의 풍류를 말하고, 이어서 석문정의 뒷산 石室山 石室에서 朱子 책을 읽었던 김성일을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일의 사적을 통해서, 이현일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김성일처럼 은일을

26) 이현일, 『갈암집』 제1권, 「1월 6일, 여러 벗들을 데리고 石門亭에 올라」

27)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月城 李君이 鶴駕山 남쪽에 집을 짓고 巖壑의 빼어난 경치를 독차지하여 畸人 逸士의 멋을 깊이 지녔으니, 참으로 당세의 기이한 일이다. 내가 이군과는 始祖가 같고 게다가 오랜 교분이 있어 寧海에 살 적부터 서로 왕래하며 잘 지내 왔었다. 그러다가 내가 府의 서쪽으로 이사하게 되자 이군 집과의 거리가 겨우 십 리 남짓했기에,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신고 서로 찾아가 만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군은 이미 한적한 곳에서 靜養하느라 山門을 나서는 때가 드물고, 나는 동서로 일에 골몰하느라 자주 山居를 찾아가 이군의 기이한 담론을 정겹게 듣지 못한 터라, 대양 그 빼어난 시냇물 소리와 산빛을 상상할 적마다 마음에 慨然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루는 일을 보러 가던 길에 그 집을 들렀더니 이군이 벽에 걸린 題詠, 짧은 절구 긴 읍시 수십 편을 가지고서 나에게 화답하여 對聯을 채워 주길 요구하기에, 마침내 읍시 한 수를 차운하여서 한가히 지낼 적의 한번 웃음거리로 삼노라.」

하여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나)의 시 제목은 시를 지은 연유와 그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현일은 월성 이군의 삶과 실천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벗은 학가산의 암학의 隱求之士로 마음을 수양하면서, 山水에 노닐며 즐거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현일은 西漢 말의 高士 鄭子眞의 鄭谷口를 빗대고 있다. 이러한 이군의 삶과 실천을 가까이에서 벗하고자 이사를 한 것이다. 이현일의 삶 역시 이군처럼, 은일을 하여 求道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서 隱求之士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현일은 동생 항재 이승일의 廣麓草堂 시에 차운한 것에서, “구름 보다 낮에 조는 한 몫시 괴로우니, 이제부터 자네와 함께 시골에서 늙으리라.”²⁸⁾라고 했다. 여기서도 그는 풍진에서 벗어나, 고향에 은일하여 평생토록 학문 탐구와 수양 및 함양만을 하고자 했다. 그가 유일로 천 거되기 이전, 아버지와 형제를 따라 진정한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기에, 세상의 풍진을 다 겪은 이후에는 이러한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그는 유람 및 기행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위의 시에서 이현일이 이군이 깊은 산속에서 靜養하는 모습을 애찬하고 있듯이, 고요히 성정을 함양하는 것은 隱求之士의 중요한 요체이다. 그러므로 日新軒의 御製에 삼가 和韻을 하면서, 그는 “치국의 도는 자신 반성이 으뜸이니, 온갖 조처 근원이 모두 마음에 달렸다고, 이미 고요한 중에 마음을 잘 길렀으니, 다시금 실제 일 속에 긴절히 힘 쓰시

28)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應中の 廣麓草堂 시에 차운하다.」, “正苦看雲眠日恨 從今要共老樵漁.”

길.”²⁹⁾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현일은 고요한 山水에서 성정을 함양하고 진정한 학문을 탐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

벗들과 함께 흥을 타고 산에 들어오니	提携乘興入山來
신록은 우거지고 폭포 소리는 우레여라	嫩綠成陰瀑響雷
깊은 골짜기에서 잠시 번잡한 가슴 씻노니	暫滌煩襟資絕壑
세상 풍진을 쉽사리 쫓지 않도록 해야지	莫教容易犯風埃 ³⁰⁾

(나)

푸른 나무 우거지고 폭포는 우레 소리	綠樹陰陰瀑響雷
향로불을 마주하니 그야말로 우뚝해라	香爐相對正崔嵬
하루도 기다릴 것 없이 가슴이 씻겨져	盪胸不待窮朝暮
잠깐 사이 속세의 번뇌가 식은 재 되누나	造次能教俗慮灰 ³¹⁾

(다)

망장산 속에 자리한 불일암	方丈山中佛日開
날아갈 듯 단청한 누각 구름 속에 솟았어라	入雲飛閣碧崔嵬
이 누각에 오르니 이미 세상 미련 끊기어	登臨已斷區中戀
곧바로 이곳에 살아 산을 내려가지 않고파라	直欲冥棲不下來 ³²⁾

이현일의 山水 유람은 (가)처럼 同人들과 함께 한 경우가 많다. 이

29)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日新軒의 御製에 삼가 和韻하다.」 2수 中, “治道無如省厥躬 化原機務摠由中 已從靜處勤持養 更向施爲緊著功.”

30) 이현일, 『갈암집』 제1권, 「기사년 늦은 봄, 벗들과 함께 三成이란 작은 암자에서 노닐며」

31) 이현일, 『갈암집』 제1권, 「玩瀑臺에 올라」

32) 이현일, 『갈암집』 제1권, 「佛日庵에 올라」

시는 삼성암을 노닐고 지은, 「기사년 늦은 봄, 벗들과 함께 三成이란 작은 암자에서 노닐며」이다. 신록과 폭포가 조화를 이룬 산을 유람하며, 세상의 풍진을 맑끔하게 씻어내고 있는 心狀을 표현하고 있다. 洗心, 즉 遏人慾存天理의 마음을 山水의 도움을 받아 함양하며, 자기화하고 있었다. 隱求之士는 도학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먼저 그 사사로운 마음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현일은 「仲春 보름에 어른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시냇가로 나갔다가 느낌이 일어」³³⁾에서도, 공자와 증점의 浴沂의 기상³⁴⁾을 함양하고, 天理를 관찰하고 자기화하는데 의심이 없었다.

(나)는 지리산 완폭대를 유람하고 남긴 시이고, (다)는 지리산 불일암을 유람하고 남긴 시이다. 두 시 모두 푸른 나무, 폭포, 향로봉, 지리산 불일암 등을 통해 洗心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遏人慾存天理의 경지를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산을 내려가기가 싫은 것이다. 이현일은 “고경을 거둬 닦아서 다시 밝히려니, 그 공부를 이루기란 참으로 어려워라, 마음을 불러 깨워 주옹을 머물러 두고, 이욕을 끊어서 마침내 신사를 맑혀야지.”(古鏡重磨要復明 工夫取次信難成 喚醒留得主翁在 絕利終教神舍清)³⁵⁾라고 했다. 그는 항상 主敬하여 存誠을 이루고, 마음의 본체를

33) 이현일은 「仲春 보름에 어른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시냇가로 나갔다가 느낌이 일어」(『갈암집』 제1권)에서, “걸어서 맑은 시냇가로 나가서, 무우 위를 한가히 거니노라니, 솔과 삼나무는 생황을 연주하고, 붉고 푸른 빛 병풍을 둘러쳐어라, 어른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바람 쇄고 시 읊으며 한가히 노니니,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한 理, 고요히 관찰하매 손바닥 보듯 환해라.”(步出清溪邊 逍遙舞雩上 松檜奏笙簧 紅綠粧屏障 冠童六七人 風詠窮遐賞 此理塞兩間 靜觀如指掌)라고 하여, 육기의 기상과 풍류를 즐길 뿐만 아니라, 천리를 통찰·함양하며 자기화하고 있었다.

34) 『論語』「先進」에 나온다. 이현일은 이러한 기행시가 「봄날, 어른과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觀瀾亭에 올라서, 절구 한 수를 읊어 동지同志들에게 보이다」에서도 나타난다.

밝히고자 했다. 이러하면 治國平天下가 가능하고, 욕심의 싹을 잘라, 居敬窮理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일은 이러한 생각으로 도산서원, 서악서원 등을 유람하기도 한다. 「西岳書院에서 자며 감회를 읊다. 계사년(1653, 효종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薛聰·金庾信·崔致遠을 생각하며, 17세기 당대 자신이 할 수 있는 求道를 항상 생각하며 실천하고자 했다. 그의 隱逸 목적은 求道를 온전히 지향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心的 희망이 유람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고 있었다. 나아가 그러한 마음을 자기화하여 항상 자신이 그러한 경지에 있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道는 일상생활 인륜 속에 있으니, 徐行後長이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지.”³⁶⁾라고 읊은 곳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현일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퇴계학을 계승한 것이다. 그 가운데 후인들에게 전수한 퇴계의 성리학은 영남학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상에 중심에 있던 인물의 기행과 유람은 隱求之士의 심성 함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당, 서원 및 전대 선현의 유적을 탐방해 더욱 求道를 지향하게 되고, 아름다운 山水의 선경을 유람하면서도 산수의 성정[天理]을 함양해 자기화하며,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퇴계학을 계승하고, 17세기 당대 영남사람의 영수가 된다. 그리고 그는 일상에서 벗어난 유람의 생활과 마음에서도, 그 인품과 덕행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어, 영남사람의 영수의 기상과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었다.

35)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權子壽 甲萬의 喚醒齋 시에 화운하다.」 2수 中, 참조 바람.

36)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曹君希點은 南冥의 후예인데 光陽의 玉龍洞으로 나를 찾아와서 학문의 방도를 묻길래 이 시를 써서 주다.」, “道在人倫日用間 徐行後長諒非難.”

3. 현실 인식과 想念

이현일의 기상은 1635년 9세에 「花王詩」³⁷⁾를 지으며, 이미 주변 선비들에게 재상의 기상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다. 오랑캐의 침략과 1636년 병자호란은 이현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1635년 이현일이 9세에, 이미 仲兄 存齋 李徽逸이 그에게 포부를 물으니, “元帥가 되어 오랑캐들을 소탕해 버리고 遼東을 수복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이었다. 이현일은 국내의 시대와 현실 인식을 어려서부터 지대하게 관심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일상을 벗어난, 그의 유람 및 기행에서도 당대의 현실 인식 및 비판과 상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

시월이라 명주에 눈발이 날릴 듯하니	十月溟州雪欲飛
추운 날씨에 먼 길손 상념이 하염없어라	天寒遠客思依依
왕사가 근자에 연계 땅을 수복했다니	王師近報收燕薊
어찌하면 관문을 열고 병장기 수선할꼬	安得開關點鐵衣 ³⁸⁾

(나)

기성 동쪽 편 월송 머리에는	箕城東畔越松頭
딱따기 치고 중 울리는 수루가 있어라	擊柝鳴鐘有戍樓
임영의 빼어난 경치 구경하기 정말 좋아	正好臨瀛窮勝賞
다시금 붓 쥐고 명류들 이어 시 적었으리	却應拈筆踵名流
몇 해나 속절없이 노중련의 한 품었더뇨	幾年空抱魯連恨

37) 이현일, 『갈암집 부록』 제1권, 「연보」, “봄바람에 모란꽃이 피어, 말없이 계단 위에 있네, 많고 많은 저 꽃들이여, 어느 것이 승상이 되려는고”(花王發春風 不語階壇上 紛紛百花開 何花爲丞相)

38)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旅舍에서 회포를 적다」.

이날은 외려 왕찬의 시름을 보태었겠군	此日還添王粲愁
빠른 세월은 사람을 늙음으로 몰아대니	急景驅人向潦倒
백발의 몸 조각배에 눕는 게 참으로 제격	白頭端合臥扁舟 ³⁹⁾

(가)는 「旅舍에서 회포를 적다.」이다. 이현일은 明나라 遺民이 청나라에 倡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강릉의 旅舍에서 이 시를 짓게 된다. 이현일은 1636년 10세 겨울에 南漢山城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미 그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분개하며, “창 앞의 네 그루 매화나무, 황혼의 달을 향해 피었네, 꽃 아래에서 음주나 하려 했더니, 오랑캐가 성벽을 에워쌌다 하는구나.”⁴⁰⁾라고 하며 「臘梅詩」를 짓는다. 이현일은 청나라에 대한 인식 및 반감을 비판하고 있었으며, 유람 및 유배 시절에도 시로 형상화해 잘 나타내고 있었다. 즉, 조선의 안위를 걱정하며 想念을 하고 있었다.

(나)는 「景羲의 越松亭 시에 차운하다.」이다. 월송정은 臨瀛, 강릉에 소재한 정자이다. 이현일은 강릉의 빼어난 경치를 완상하지만, 당대의 시대를 인식하고 있었다. 노중련의 고사⁴¹⁾를 가지고 와서, 淸나라를 섬기는 시대를 한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어 그는 王粲이 「登樓賦」에서, “참으로 아름답지만 내 땅이 아니니, 어찌 잠시인들 머물 수 있으리오.”⁴²⁾

39)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景羲의 越松亭 시에 차운하다.」

40) 이현일, 「연보」, “窓前四梅樹 開向黃昏月 欲飲花下酒 奴賊圍城闕”

41) 전국 齊나라의 高士인 노중련이 趙나라에 가 있을 때이다. 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邯鄲을 포위했는데, 魏나라가 장군 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했다. 노중련은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나라 장군이 군사를 후퇴시켰다.(『史記』 제83권, 「魯仲連列傳」 참조 바람.)

42) 王粲, 『文選』 제11권, 「登樓賦」, “雖信美而非吾土兮 曾何足以少留.”

라고 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오랑캐로 인식한 청나라를 섬겨야 하는 울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현일은 유람을 하면서도 당대 국내외와 정국의 불안에 대해 걱정과 상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鏡浦臺에 올라」에서도, “천리 먼 길 와서 경포대에 오르니, 시야 가득한 호수에 주체할 수 없는 상념, 누른 구름 덮인 변방엔 찬 기운이 통하고, 바람 부는 높은 누각은 티끌 멀리 벗어났다, 나는 새 헤엄치는 고기 동물은 자득하건만, 고금이 텅 비었는데 이내 생애 서글퍼라, 백 년의 근심과 즐거움 자신 위한 것 아닌데, 부끄럽게도 일엽편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군.”⁴³⁾라고 하면, 범려의 고사를 인용하여,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지만, 청나라를 물리쳐 國恥를 씻지 못하는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시대적 상념과 한은 아름다운 仙境을 뒤로 한 채 깊이 와 닿고 있었다.

(가)

지난해 종산에는 끼치신 자취 없어	昨歲鍾山無遺蹟
백년의 원통한 한 지금껏 남았더랬지	百年冤恨至今留
남쪽으로 와서 우연히 화개현 지나니	南來偶過花開縣
상상하매 다시금 끝없는 슬픔이 이누나	想像還添不盡愁 ⁴⁴⁾

(나)

북방에 막 流落한 곳 이름하여 웅성이라	北路初落號雄城
띠처럼 둘러친 산천이 안팎으로 뻗었구나	襟帶山川表裏橫

43) 이현일, 『갈암집』 제1권, 「鏡浦臺에 올라」, “千里登臨鏡浦臺 江湖極日思難裁 黃雲塞戍寒通氣 高閣天風勢絕埃 飛泳靜閒物自得 古今寥廓吾生哀 百年憂樂非身計 慙愧扁舟作散材.”

44) 이현일, 『갈암집』 제1권, 「花開에서 鄭一蠹의 遺墟를 지나며」,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이곳 수령으로 부임했단고 終古幾人曾牧此
고을 이름에 걸맞은 공훈 세운 이 듣지 못했어라 未聞勳業協州名⁴⁵⁾

(가)는 「花開에서 鄭一蠹의 遺墟를 지나며」이다. 여기서 종산은 함경북도의 鍾城으로, 1694년(숙종 20)에 이현일이 유배되었던 곳이다. 鄭汝昌 역시, 戊午士禍로 인해 종성으로 유배되어, 여기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현일의 그때 심정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상념에 접해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화개의 정여창 유허를 지나면서는 얼마나 많은 상념이 생각났을까 짐작이 된다. 17세기 봉당정치의 희생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이었기에 그 슬픔은 배가 되었을 것이다. 정여창의 원한, 백 년의 원통함은 바로 이현일의 원한과 유사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吉州 일명 雄城를 지나다 감회가 있어」이다. 길주는 지금의 함경북도 길주군이다. 이때의 기행은 유배지이든지, 유배를 가는 도중이나 적소를 이거할 때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북방은 유배지이고, 척박한 땅으로 조정의 다스림과는 거리가 멀다. 이현일은 이곳의 산천이 빼어나다고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수령이 아름다운 정사를 펼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길주, 웅성이라는 지명에 맞는 공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는 유배 생활의 기행에서도, 국가의 안위와 당대 백성이 처한 현실을 인식 및 비판하며, 슬픈 상념에 젖어 들고 있었다.

(가)
벗들의 정이 매우 친밀하여 親朋情誼密
헤어지려니 눈물이 절로 흐르네 分手淚成行

45) 이현일, 『갈암집 속집』 제1권, 「吉州 일명 雄城를 지나다 감회가 있어」

다 함께 와서 나를 전송해 주니
아득한 이별의 슬픔이 하염없어라

相率遙相送
蒼茫別意長⁴⁶⁾

(나)

늘 구름 보며 낮에 조는 한으로 괴롭다
한양성에서 잠시나마 함께 지내 기뻐지
할미새 급히 날다 이내 서로 헤어지니
비바람 치는 밤중 곁절이나 마음 슬퍼라

長苦看雲眠日恨
聯牀乍喜漢陽城
鶴翎飛急旋分袂
風雨中宵倍愴情⁴⁷⁾

위의 시들에서는 이현일의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고 있다. (가)는 「강 어귀에서 입으로 불러 읊어서 晉陽의 士友들에게 증별하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현일은 출사와 퇴처, 그리고 유배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다. (가)는 진주에서의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즈음으로 추측된다. 유배 생활에서의 정든 同類들에게서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대의 정국과 그의 삶이 관련된 부분이기때문에 그 상념이 크게 와 닿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별을 앞두고 아우 응중에게 주다. 한강 가 교외에서 유숙하는데 비바람을 만나 감회가 일었다.」이다. 그는 잠깐 동안의 아우와의 만남과 그 이별이 한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출사와 퇴처를 많이 한 것이기에 고향 집과 가족에 대한 생각은 남다른 것이다. 杜甫의 「恨別」⁴⁸⁾과 『詩經』 「常棣」⁴⁹⁾의 고사를 인용하여 상념을 다스리고 있다.

46) 이현일, 『갈암집 속집』 제1권, 「강 어귀에서 입으로 불러 읊어서 晉陽의 士友들에게 증별하다.」

47) 이현일, 『갈암집』 제1권, 「이별을 앞두고 아우 응중에게 주다. 한강 가 교외에서 유숙하는데 비바람을 만나 감회가 일었다.」

48) 두보는 「恨別」에서, “고향 집 생각하며 달 아래 거닐다 맑은 밤에 서 있고, 아우를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노라.”(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라고

그러나 비바람 치는 밤중이기에 그 슬픔은 곱절로 느끼게 된다.

그의 想念은 나라가 봉당정치의 소용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 역시 출사 및 퇴처 그리고 유배의 삶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직접 관찰했기 때문에 더욱 슬프게 느껴진다. 더욱이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하며, 국가의 안위가 편치 못함을 슬퍼했던 것이다. 그의 기행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났기에, 개인적 상념이 국가적 상념과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는 그의 재상적 기질 및 기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 근심이 범인의 것과 차별되었고 월등했다.

이현일이, “어려운 시국 구제하는 게 본래 꾀한 바, 평소 마음은 그윽한 자연에 있지 않았건만, 벼슬길에 오르자 이내 비웃음만 실컷 사고, 상대에 잠시 머물자 허물만 많이 입었어라.”⁵⁰⁾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당대의 정국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당대 현실은 그 러하지 못해 봉당의 이익만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국가의 안위에 관한 상념은 유람 및 기행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현일의 상념은 당대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었기에,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상념으로 와 닿게 된다. 그의 기상과 희망으로는 정국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했고, 오히려 유배를 당했기에 그 상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상을 벗어난, 그의 유람 및 기행은 변방에 들끓는 오랑캐에 대한 걱정과 봉당정치로 팽배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은 이러한

하였다.

49) 『詩經』 「常棣」에, “할미새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을 구한다.”(脊令在原 兄弟急難)라고 하였다.

50) 이현일, 『갈암집』 제1권, 「江村에서 배를 타고 협곡을 거슬러 오르며」, “經濟時艱 夙所謀 素心不在林泉幽 纔隨宦牒還饒笑 乍忝霜臺剩見尤.”

상념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현일의 상념은 당대 정국을 위해 생겨난, 재상적 기질과 기상으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IV 결론

이현일은 ‘퇴계-학봉-경당-갈암’으로 퇴계학의 성리학과 사상을 이어받아, 17세기 영남학파의 영수가 되었다. 이어서 ‘밀암-대산’으로 학문과 사상을 이어지게 하였다. 본 논의는 17세기 영남사림의 영수인 이현일의 유람과 기행에 나타나는 形像에 주목을 하였다. 특히 그가 마음을 표현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현일의 유람 공간은 고향 주변·안동·서울로 가는 길목·유배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유람하며 다양한 마음의 정서를 표출하여 시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가 유람하는 와중에, 마음의 상태가 교차되거나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기행시에 나타난 특징 및 心의 형상화는 우선 山水 玩賞과 抒情味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현일은 유일로 천거되었지만, 당대의 봉당으로 정국이 불안했다. 그는 정사에 대한 희망과 좌절이 거듭 반복되었다. 그러하기에 유람을 하면서, 仙境을 소요 및 완상하고, 순전한 서정적 아름다움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퇴계학을 계승한 이현일의 기행과 유람은 은일을 지향했고, 그 心狀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당, 서원 및 선현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隱求之士의 求道를 지향하며 산수를 통해 성정을 함양해 자기화하고 있었다. 즉, 그는 학문과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성정을 함양하며 자기화하고 있었다. 퇴계학을 계승하고, 17세기 당대 영남사림의 영

수가 된 이현일의 정확한 인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현일은 想念이 일어나, 국가 안팎의 시대와 현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봉당의 피해를 본 유배 생활 와중에도, 당대 정국과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일상을 벗어나서도, 변방에 들끓는 오랑캐에 대한 걱정과 봉당정치로 패배한 당대 정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현일의 상념은 재상으로서의 가지는 올곧은 기상이 마음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현일의 문집에 나타난 心學의 형상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시뿐만 아니라, 산문, 경연강의 등 다른 작품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心學을 고찰해야 한다. 다음으로 퇴계-학봉-경당-갈암-이재-대산 등 心學의 문학적 형상화 전개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이는 퇴계학의 전개 과정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와 心學의 문학적 형상화를 비교연구 해야 한다. 나아가 기타 노론과 학파의 心學의 문학적 형상화도 비교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현일, 『갈암집 별집』
이현일, 『갈암집 부록』
이현일, 『갈암집 속집』
이현일, 『갈암집』

『杜工部集』
『論語』
『文選』
『史記』
『三國志』
『詩經』
『草堂詩箋』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 권병도, 「葛庵 李玄逸先生の 생애와 箴銘에 대하여」, 『동양예학』 제35집, 2016, pp.1-20. I410-ECN-0102-2018-100-000331166
- 김경호,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율곡 사칠론 비판: 그 접점과 간극」, 『율곡학연구』 제19집, 2009, pp.111-162. I410-ECN-0102-2012-150-000919855
- 김낙진, 「葛庵 李玄逸 성리설과 경세론의 특색」, 『퇴계학』 제20집, 2011, pp.29-64. I410-ECN-0102-2012-150-002458528
- 김성운, 「『홍범언의』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 葛庵 이현일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론 - 」, 『대구사학』 제83집, 2006, pp.105-134. I410-ECN-0102-2009-910-000350768
- 김성운,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 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 」, 『퇴계학보』 제119집, 2006, pp.69-122. I410-ECN-0102-2009-150-000941763
- 김학수, 「17세기 영남 유학자, 葛庵 李玄逸」, 『선비문화』 제20집, 2011, pp.136-147. I410-ECN-0102-2012-360-002319322
- _____, 「葛庵 李玄逸의 學問과 經世論 연구 - 영남학파의 결집과 경세론을 중심으로

- 로 -」, 『창계사학』 제19집, 2004, pp.89-148. I410-ECN-0102-2019-900-001747186
- _____, 「葛庵 이현일 연구 -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제4집, 1998, pp.85-126. I410-ECN-0102-2008-910-001115052
- _____, 「갈암학파의 성격에 대한 검토 - 諸學脈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 『퇴계학』 제20집, 2011, pp.65-99. I410-ECN-0102-2012-150-002473387
- 김홍수, 「『洪範衍義』의 편찬과 간행」, 『민족문화논총』 제57집, 2014, pp.27-51. I410-ECN-0102-2015-900-000212691
- 나대용, 「갈암 이현일의 理氣二源說 - 愚潭과의 논변을 중심으로 -」, 『퇴계학보』 제133집, 2013, pp.133-184. I410-ECN-0102-2014-100-001506165
- 박홍식, 「葛庵 李玄逸과 寧海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28집, 2000, pp.179-200. I410-ECN-0102-2009-150-009156600
- 송재소, 「葛庵 李玄逸의 詩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14집, 1998, pp.17-26. I410-ECN-0102-2009-820-007811790
- 신두환, 「갈암 이현일의 漢詩 연구」, 『퇴계학』 제20집, 2011, pp.101-153. I410-ECN-0102-2012-150-002440115
- _____, 「葛庵 李玄逸의 漢詩에 나타난 詠史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2, 2011, pp.177-208. I410-ECN-0102-2012-810-002481200
- 안유경, 「17세기 후반 퇴계학과 성리설의 분화양상에 관한 연구 - 우담과 갈암의 율곡 성리설 비판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제34집, 2013, pp.249-270. I410-ECN-0102-2013-000-002080236
- _____,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환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퇴계학보』 제138집, 2015, pp.159-188. I410-ECN-0102-2016-150-000581448
- 유권중, 「특집: 한국성리학의 전개와 여현사상 (1): 갈암의 여현 성리학에 대한 비판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27집, 2006, pp.81-115. I410-ECN-0102-2009-150-000940160
- 이기용, 「葛庵 李玄逸의 栗谷 性理學 비판」, 『율곡학연구』 제16집, 2008, pp.5-31. I410-ECN-0102-2009-990-008390882
- 이민재, 「갈암 이현일의 시문에 나타난 역사의식」, 『배달말』 제54집, 2014, pp.157-193. I410-ECN-0102-2015-700-000343913
- 이상익, 「葛庵 李玄逸의 理能發論과 理氣分開論」, 『퇴계학보』 제122집, 2007, pp.159-214. I410-ECN-0102-2009-150-009158755

- 이영호, 「『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 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 », 『퇴계학보』 제143집, 2018, pp.107-136. 10.46264/toegye.2018.143.03
- 이원준 · 최영진, 「理到說에서 理盡說로: 葛庵 李玄逸의 物格說」, 『한국사상사학』 제50집, 2015, pp.367-395. I410-ECN-0102-2016-150-000308834
- 장윤수, 「葛庵 李玄逸의 敬論과 이론 배경」,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8집, 2011, pp.241-276. I410-ECN-0102-2012-150-001805661
- 정낙찬, 「갈암 이현일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제50집, 2013, pp.269-305. I410-ECN-0102-2014-300-001659565
- 정만조, 「조선후기 정국동향 政局動向과 葛庵 李玄逸의 정치적 位相」, 『퇴계학』 제20집, 2011, pp.1-27. I410-ECN-0102-2012-740-002366330

Abstract

Characteristics of Galam Lee Hyeon-il's Travels and the Shape of the Heart

Kim, Jong-gu

Hyeon-il Lee inherited the philosophy and ideology of Toegye-hak, which led to 'Toegye-Hakbong-Gyeongdang-Galam', and became the head of the Yeongnam School in the 17th century. This discussion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ee Hyun-il's excursions and travel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mind. It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accurately reveal the human image of Lee Hyun-il by examining the phenomena that occur outside of daily life and how the heart is expressed in literary form.

Lee Hyun-il's space for excursions and travel was around his hometown, Andong, the road to Seoul, and exile, and he was creating poetry by expressing various emotions. During his excursions, his state of mind appeared crossed or mix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hape of the heart that appeared during travelling were first expressed as 山水玩賞 and 抒情味. He rioted and perfected 仙境, and expressed pure lyrical beauty in poetry. Second, his travels and excursions were manifested in Eunil intention and the shape of the heart. He explored the ruins of Seon-hyeon, pursued Eun-il, and poetically embodied the state of mind. Third, a variety of conflicts arose, and they were worried about the times and reality. Even during exile outside of daily life, he was worried about barbarians and the safety of the country. His thoughts were emerging with the spirit of a prime minister.

Key Words : Galam Lee Hyun-il, excursion, travel, travel poetry, Heart, visualization, lyric, seclusion, miss

김종구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졸업

전자우편 : piny0928@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